

## 도래하지 않을 미래를 쓴다는 것

— 해방기 북한 토지개혁과 『농민소설집』(1949) 시리즈를 중심으로

임 세 화\*

### 요약

이 글은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가 토지개혁 3년차를 맞아 출간한 『농민소설집』 시리즈(총3권 4책)의 기획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농민소설집』은 전형적인 농촌 선전소설로 읽히기 쉽지만, 그 서사의 배면에는 당대 북한사회의 핵심 과제와 욕망, 난제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해방기 ‘토지개혁’은 북한에서 이룩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자, 진정한 ‘해방’의 의미와 본질을 설파할 수 있는 증좌였다. 남북은 ‘두 번의 해방’이라는 수사를 통해 ‘해방’의 의미를 각기 전유하고,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농민소설집』은 토지개혁으로 실현된 경자유전의 원칙 위에서 농민이 경제적 주체로서 일정한 토대를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진정한 ‘농민해방’의 미래를 그렸다. 『농민소설집』은 공식적 창작방법론에 따라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교양’을 체현한 작품을 선별하여 편찬되었지만, 그 소설들에는 기획의도를 배반하는, 소유·신분 질서의 해체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갈등과 미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선경제구조를 기형화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침투 이후에도 나름의 도덕경제 안에서 공동체를 꾸렸던 마을 사람들은 토지개혁을 기점으로 새 경제 체제와 변화된 도덕률의 세계에 인입하게 된다. 과거의 소유 제도와 관습 안에서 규정되던 한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격랑을 맞게 된 것이다. 지주와 빈농을 선악의 도덕적 구도로 간주하는 관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예컨대 과거 자영농·자소작농이 토지개혁을 바라보는 미묘한 심리나 신분의 위계가 해체되며 머슴과 동등한 처지가 된 평민의 불만이 새로운 공동체에 수렴·충돌하는 양태를 소설은 ‘해소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가능한 갈등'으로 그려냈다.

『농민소설집』의 소설들은 당대의 담론장에서 운위되지 않고 포착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담아내고, 현실세계의 난제들을 서사적 공간에서 재현하며 그 해결의 과정을 상상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레알리티'한 농촌 현실의 재현을 중시했던 북의 작가들이 '도래해야 할 미래'를 전제한 뒤, 그 '오지 않은 미래'를 형상화해야 했던 난망, 서사적 공백으로 남겨진 도정의 흔적은 오지 않은(을) 미래를 '부재(不在)로 언명하지 않기 위한 문학의 응전이었다.

주제어: 농민소설집, 토지개혁, 도덕경제, 농민의 해방, 긍정적 인물, 창작방법론, 윤시철, 「이양」, 유허림, 「부득이」, 한설야, 「마을 사람들」, 윤세중, 「어머니」, 리춘진, 「자랑」, 황건, 「십릿벌」, 「산곡」

목차

1. 문학사적 결절로서의 '토지개혁'과 농민소설집 시리즈의 기획
2. 북한 토지개혁 소설의 '전형성'과 그 바깥  
—천세봉의 「땅의 서곡」, 천청송의 「탑거리」
3. 도덕경제의 재구축:  
소유·신분 질서의 해체와 '자작농'의 부정적 재현 양상  
—윤시철의 「이양」, 유허림의 「부득이」, 한설야의 「마을 사람들」
4. 개혁 이후: 공통의 풍경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윤세중의 「어머니」, 리춘진의 「자랑」, 황건의 「십릿벌」, 「산곡」
5. 결론을 대신하여

## 1. 문학사적 결절로서의 '토지개혁'과 농민소설집 시리즈의 기획

토지개혁은 해방기 북한사회가 경제 혼란에 휩싸였던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극명한 대립점을 형성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사건이었다. 북한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물이자 '해방'의 증좌로서 토지개혁이 지니는 의미를 서사적 공간에서 형상화했던 작업은 정치적

목적을 넘어, 북한문학이 형성되어가던 한 도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947년을 전후하여 남북의 이념분기가 격화되어가던 시점과 남·북의 문학적 경향성의 분화가 본격화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은 일면 자연스러운 흐름 같지만 결코 예사롭지 않다. 토지개혁을 남북 분단의 문학적 분기점으로 규정해온 연구사의 흐름은 그 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트루먼 독트린 등을 위시한 냉전 구도의 영향력을 감안하고도, 토지개혁이라는 사건은 —각기 썩어지게 된— 남북한 문학사에서 시기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중대한 결절이었던 것이다.

1947년을 전후한 ‘북한문학사’의 흐름을 고찰한 연구들은 작가들의 창작방법론, 정책적 변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등 단체, 문예론 등을 경유하여 해방기 북한문학의 세부를 밝혀왔다.<sup>1)</sup> 그 대표적인 주제어 중 하나는 ‘고상한 리얼리즘’이다. 당파성에 의거하여 긍정적 주인공을 형상화하고 ‘혁명적 낭만주의’를 내포하는 ‘고상한 리얼리즘’은 해방기 북한문학의 ‘새로운 창작방법론’으로서, 북한문학의 기원과 특수성을 포착하고, 담론적 지침이 획일화되어가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sup>2)</sup> 1946년 12월의 옹향 사건 역시 문학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획일화된 검열과 도식주의의 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sup>3)</sup> 이른바 ‘북한문학’이 ‘남한문학’과 뚜렷이 분리되며 경향성을 띤 독자적인 성격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진해나간 시점을 1947년을 전후한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기 이후 발표(창작)된 문학작품 및 기획들은 그 분화의 본질이자 혼적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1) 김성수는 북한 문학비평사의 역사적 기원으로 해방기 북한문학의 이데올로그들의 창작방법론 및 비평의 실체를 복원하여 그 변화와 의미를 통찰하였다. 김성수, 『북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비평사(1945~67) 연구 서설』, 『반교어문연구』 59, 반교어문학회, 2021, 207-210면.  
 2) 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 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 『우리어문연구』 46, 우리어문학회, 2013, 328-329면.  
 3) 오태호, 『『옹향』 결정서를 둘러싼 해방기 문단의 인식론적 차이 연구』, 『어문논집』 48, 중앙어문학회, 2011, 37-41면.

이 글은 특히 ‘토지개혁’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해방기 ‘북한문학’에 작용했던 영향력을 작가·창작의도·인물·현실·작품이 매개되던 과정 위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작가의 창작의도와 창작방법론, 비평 및 기획 등이 작품에 온전하게 관철될 수 없는 문학의 자명한 특질에 기반하여, 의도한 것과 비껴나간 것, 전형성과 그 전형성의 바깥을 해체적으로 탐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sup>4)</sup>는 당위에 의거하여 1946년 3월 5일 법령 공포 이후 농민위원회를 단위조직으로 하여 25일 만에 완료되었다. 기존 지주와 일본인의 소유였던 토지<sup>5)</sup>는 무상 몰수되어 농민들에게 고루 분배되었다. 소유 질서의 재편에 따른 지주들의 반발과 농민들의 의구심을 파쇄하기 위하여 토지개혁의 필연을 설파하는 담론이 활발하게 생산되었고<sup>6)</sup>, 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선전하는 작

4)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북한법령연혁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137-138면.

5) 토지개혁시 몰수·분여된 토지의 면적 및 종류 등은 다음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북한 토지개혁시 몰수·분여 토지 면적(호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59-60면.

	면적(정보) (%)		그 중				농가 호수 (%)	
			경지면적 (%)		그 중 과수원 (%)			
<b>몰수한 토지</b>	1,000,325	100.0	983,954	100.0	2,692	100.0	422,646	100.0
일본인 및 일본국가 토지	112,623	11.3	111,561	11.3	900	33.4	12,919	3.1
민족반역자 및 도주자 토지	13,272	1.3	12,518	1.3	127	4.7	1,366	0.3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 토지	237,746	23.8	231,716	23.6	984	36.6	29,683	7.0
전부 소작주는 지주의 토지	263,436	26.3	259,150	26.3	292	10.8	145,688	34.5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자의 토지	358,053	35.8	354,093	36.0	381	14.2	228,866	54.1
성당·승원·종교 단체의 토지	15,195	1.5	14,916	1.5	8	0.3	4,124	1.0
<b>분여한 토지</b>	981,390	100.0	965,069	100.0	-	100.0	724,522	100.0
고용 농민에게	22,387	2.2	21,960	2.2	-	-	17,137	2.4
토지 없는 농민에게	603,407	60.3	589,377	59.9	-	-	442,973	61.1
토지 적은 농민에게	345,974	34.6	344,134	35.0	-	-	260,501	36.0
이주한 지주에게	9,622	1.0	9,598	1.0	-	-	3,911	0.5
인민위원회 보유지	18,935	1.9	18,885	1.9	2,692	100.0	-	-

6) 대표적으로 박동철의 『농민독본』은 “왜 토지개혁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당대 북한

업이 병행되었다. 체제경쟁에서의 우위를 증명하고 인민대중에게 ‘해방’의 본질을 체감케 한 사건으로서 토지개혁은 완수되어야 했다. 토지개혁을 표징으로 해방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작업은 북한 내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방을 맞았음에도 경제적 도탄에 빠진 남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농민들이 기와집을 받고 전기를 이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모두 “토지를 맡가리하는 농민자신이 소유”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언제나 ‘토지개혁’의 기반 위에서 운위되었다. 나아가 농민들이 “민주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학교 교육을 받는 농촌의 “민주주의민족문화”가 꽃을 피우는 등 정치·경제·문화 전방면에 걸쳐 “민주개혁”이 이룩되었음을<sup>7)</sup> 서사적으로 재현하는 작업 역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토지개혁(1946.3.5) 3년차를 맞은 1949년,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는 농민소설집 시리즈<sup>8)</sup>를 기획·출간한다. 『농민소설집 제1권』에는 부제가 없고, 『농민소설—자라는 마을』에는 ‘제2권’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러나 각 권의 출간 시기가 4월(1권), 8월(2권), 12월(3권, 상·하) 이고 ‘제2권’임을 명기한 다른 도서가 없으며, 동일한 양식과 편집 체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농민』에 게재된 평문에 “북조선 농민동맹 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에서 일반 농민독자들에게 읽이기위해서 둘째번으로 발간한 소설집 『자라는 마을』<sup>9)</sup>”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소설—자

사회의 답변 및 담론화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박동철, 『농민독본』, 신흥출판사, 1948.

7) 강진건, 「해방 2년간에 있어서 북조선농민의 생활」 『보도』 4, 민주조선출판사, 1947.10, 25-29·40면.

8) 『농민소설집』은 1949년 4월·8월·12월, 총 3회에 걸쳐 출간되었고 3권(총3권 4책, 제3권은 상·하) 모두 미군정 노획문서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12; Series,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MdCpNA)

9) 여민, 「농민소설 자라는 마을을 읽고」, 『농민』,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농민신문사 인쇄), 1950.1, 57면.

라는 마을』이 농민소설집 시리즈 제2권으로 기획된 도서임을 알 수 있다. 농민소설집은 토지개혁 이후 농촌 사회의 이상적 변화들과 더불어 문맹 퇴치, 공공품생산, 미신타파, 김일성 숭앙 등 해방기 북한사회의 핵심적 기획들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기존 매체에 수록되었던 ‘농민소설’들을 모아 재수록한 작품도 있고 첫 발표 지면을 찾을 수 없는 작품도 있으나, 작가와 작품의 선별 기준은 뚜렷한 셈이다.

책 제목 (출간연월)	『농민소설집 제1권』 (1949.4)	『농민소설 —자라는 마을』 (1949.8)	『농민소설집 제3권 —땅의 주인들』 (상) (1949.12)
			『농민소설집 제3권 —땅의 주인들』 (하) (1949.12)
수록작	리태준, 「호랑이 할머니」 윤세중, 「어머니」 리춘진, 「자랑」 최명익, 「공동풀」	한설야, 「마을 사람들」 유항림, 「부득이」 천청송, 「탑거리」	황건, 「십릿별」
			천세봉, 「땅의 서곡」 윤시철, 「이양」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농민』에 총 2회에 걸쳐 게재된 『농민소설집』에 대한 비평문은 1948~1949년 북한 농촌 사회의 핵심 의제들과 작가들의 창작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여민은 『농민소설집』을 통해 “해방후 우리 북반부농촌의 건설 모습과 발전상을 여실히 볼수있으며 우리농민들의 애국열을 더욱 똑똑히 느낄수” 있도록 “아름답고 사실적(테알리틱)일 뿐만아니라”, “농촌 청년들에게 모범적이며 교훈적”이며 “진실하고 동적인 구체적 장면들”을 그려냈다는 점을 상찬한다. 생생한 서사적 재현을 통해 “우리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북반부 농민들의 행복된정경을 다시금 완연히 눈앞에 보게”하는 것을 넘어, “농촌독

10) 농민소설집 시리즈 제1권(1949.4)의 첫 번째 수록작품인 이태준의 「호랑이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작품들이 토지개혁을 중심축으로 둔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삼고 있다.

자들”이 소설의 “교훈”과 “정신적 자양”을 동력으로 삼아 “애국적 헌신성과 증산으로 보답”하는 현실적 변화를 도출하게끔 만드는 전반의 과정까지가 농민소설집 기획 의도로 설계되어있던 것이다.<sup>11)</sup> 시리즈의 두 번째 발행본인 『자라는 마을』에 대한 평문에서도 “농민독자들이 잘알수있고 재미있게 읽도록 쉬운 말로이야기하는식으로 소설을 꾸며”, “八一五해방 후 우리북반부농촌에서 일어난 중요한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내려주고있다”는 점이 소설집의 미덕으로 거론된다. 단순한 소설적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남녀농민들이 자기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준 인민주권을 받들어 어떻게의치단합되어있으며 어떻게 건설투장을 전개하고있는가”를 서사화함으로써 아직 각성하지 못한 농민 독자들에게 “선진적이요 애국적인 모범농민”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sup>12)</sup>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북한의 토지개혁 완수는 법령 발표를 위시한 행정·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수혜자인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주체적 참여까지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조형된 이상으로서의 『농민소설집』 편찬은 토지개혁 3년차인 1949년 시점에서의 심각한 현안 과제들과 갈등을 오히려 더욱 선명히 부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는 토지개혁과 관련한 여러 기획들을 전투적으로 펼치는데, 가장 활발했던 지면 활동은 『농민』, 『조선여성』 등의 잡지를 통해 이상적 농촌 현장을 전달하는 기사와 인터뷰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었다.<sup>13)</sup> 문학자들은 이에 병행하여 창작방법론에 충실한 작품집을 편

11) 여민, 「농민소설 제1집을 읽고」, 『농민』,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농민신문사 인쇄), 1949.11, 56-58면.

12) 여민, 「농민소설 자라는 마을을 읽고」, 『농민』,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농민신문사 인쇄), 1950.1, 57-58면.

13) 『농민소설집』 수록작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 인물형상 등은 예컨대 다음의 기사들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증산을 위하여」(『농민』, 1949.1), 「모범농민 전덕남 동무」(최운란, 『조선여성』, 1949.3), 「모범농민 리보부 동무」(조희순, 『조선여성』, 1949.3), 「그 농민은 행복

찬하고 평문 등을 통해 작품 독해·수용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토지개혁이 의미화되는 방식과 상징성을 조정해나가고자 했다. 이처럼 농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층위의 선전 작업을 추진하여야 했던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1949년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핵심 의제들이 형상화되는 방식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개혁 이후의 ‘레알리틱’한 농촌 현실을 얼마나 매끄럽게/거칠게 재현해냈는지를 탐문하는 작업은 이른바 ‘전형성’ 내·외부의 현실과 욕망을 해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농민소설집』에 수록된 일부 소설들은 ‘농민소설’이라는 주제를 다룬 몇몇 연구나 작가론에서 일부 작품명 및 주제가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로만 언급된 바 있고, 작품집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sup>14)</sup>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농민소설집』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 토지개혁 이후의 북한에서 문학자들이 궁구했던 문학의 이상과 난망을 탐색하고자 한다.

함을 말하였다(김성옥, 『새조선』 2(3), 국립인민출판사, 1949.4), 「현물세 납부를 위한 통반리 농민들의 투쟁」(김진태, 『농민』, 1949.10), 「동기군중문화사업의 보다높은 향상을 위하여」(동맹군중문화부, 『농민』, 1949.10), 「고공품생산을 제때에 완수하자」(최영근, 『농민』, 1949.11), 「새영농업실시와우리마을」(남창희, 『농민』, 1950.1), 「현물세의 노래」(백근석, 『농민』, 1950.1), 「배움의 노래」(박성훈, 『농민』, 1950.1), 「향상된 마을」(리일찬, 『조선녀성』, 1950.3) 등. 이 연구에서는 작가들이 창작을 통해 서사적 공간에서 토지개혁의 이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들과 그 배면을 『농민소설집』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14) 농민 문제를 다룬 유사한 성격의 소설집으로 조선문학가동맹 특수위원회 농민문학위원회에서 편찬한 『토지』(아문각, 1947.7)가 있다. 『토지』에는 북한의 첫 토지개혁 소설로 거론되는 「개벽」(이기영, 1946.7)과 남한 농민들과 지주와의 갈등을 그린 「고구마」(이근영, 1945.11)와 「동원」(강형구), 탄광 정용과 해방을 그린 「쌀」(안희남, 1946.3), 남한에서의 인민위원회 결성과 좌익 탄압을 그린 「사랑」(박승국, 1946.12) 등이 수록되었다. 「개벽」 외에는 남한의 혼란한 실정을 그린 소설들을 편찬한 것이다. 『토지』에 대한 연구로는 박필현의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 연구—좌우의 갈등기, 문학적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 6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카포의 『농민소설집』과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 비교 연구—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가 유일하다.



## 2. 북한 토지개혁 소설의 ‘전형성’과 그 바깥 —천세봉의 「땅의 서곡」, 천청송의 「탑거리」

『농민소설집』 시리즈의 수록작들은 해방-토지개혁 이후 북한 농촌사회의 이상적 변화와 긍정적 전망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기발표작들을 포함하여 선별한 기획물이므로, 북한의 민주개혁의 성과와 의의를 담아내고 창작방법론을 우수하게 수행한 작품들의 모음집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소설들이 담아내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상·인물형상은 당연히도 전형적인 선전문학의 특성을 담지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소설집』의 성격으로 선전문학의 ‘전형성’을 거론한다면,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지점들이 남는다. 이 글은 소설의 전형성이 뜻하는 바와 그 배면의 의미, 그리고 균열을 함께 탐문하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먼저 토지개혁 소설의 전형적 구조와 인물 형상들을 검토하고, 서사의 ‘전형성’이 어떠한 조건 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북한문학 초창기의 ‘친절한 길잡이 형상’<sup>15)</sup>이라고 평가되는 「개벽」(이기영작)의 플롯 구조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며, 토지개혁 이후 인민경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농민들의 분투를 서사적으로 구체화한 가장 전형적인 소설로는 천세봉<sup>16)</sup>의 「땅의 서곡」<sup>17)</sup>을 꼽을 수 있다. 제목에서 유

15) 신형기, 「식별의 인상학—북한소설의 출발과 행로」, 『사이』 2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181면.

16) 천세봉(1915~1986)은 함경남도 고원군 고원면 금수리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4년을 수료했다. 가난으로 농사를 하며 야학으로 공부했다. 1946년 단편 「명로」가 함경남도 예술연맹 현상 공모에 당선되고, 1947년 8·15예술축전에 「새로운 맥박」(『조선문학』 창간호(1947.9))에 수상작계제로 입상하며 창작을 시작한다. 이후 고원군 인민위원회 활동을 거쳐 노동당고원군당 문화인부장을 지내며 토지개혁에 참여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었고,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 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작가동맹위원장, 노동당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1972년 김일성상, 1985년 김일성 훈장, 1986년 아세아·아프리카작가협회 문학상인 ‘로터스상’을 수여받았다. 해방기 작품으로는 「새로운 맥박」(『조선문학』, 1947), 「오월」(1947 발표, 『창작집』, 국민인민출판사, 1948 수록), 「호랑영

추되듯이 「땅의 서곡」은 토지개혁의 서막이 열리기까지의 지난한 역사와 장엄한 개혁의 결과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순박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농민들이 해방을 맞아 땅을 분여받고, 농수 공급을 위한 관개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희망찬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sup>18)</sup>

「땅의 서곡」 전반부에 묘사되는 식민지 시기 농민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수감되거나, 술 취한 경관에게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고, 아파도 약도 못 쓰고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죽지못해 불성모양으로 살아내려오다가 해방”(122면)을 맞은 농민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맞는다. “토지분여를 받아 평생에 사모친 숙망을 풀고”(123면), “온갖 구박을 받으며 소처럼 고생스럽게 들리던 머슴살이”(130면)가 종결된다. 이처럼 기적 같은 변화는 ‘해방’으로 통칭되지만, 실상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자작농사의 기반을 마련해준 토지개혁이다. 북한의 농민들에게 ‘해방’은 지주-소작농이라는 착취 구조로

감》(『문학예술』, 1949.4), 「소낙비」(1949), 「농부」(『소설집—8·15해방 4주년 기념 출판』, 문화전선사, 1949.8), 「채향기」(1949), 「다리」(『청년생활』, 1949.4) 등이 있다. 천세봉의 대표작으로 토지개혁과 전후 복구 시기 농촌의 현실을 그린 『석개울의 새봄』(1960)을 비롯하여 『안개 흐르는 새언덕』(1966), 『혁명의 여명』(1973) 등이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드물게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천세봉 연구는 대부분 『석개울의 새봄』을 다루고 있다. 1962년에 해방직후의 북한 토지개혁과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을 다룬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를 발표하였다. 「저지역력」, 한설야 외, 『소설집—8·15해방 4주년 기념 출판』, 문화전선사, 1949.8, 307면.; 「천세봉 선생략력」, 천세봉 외, 『농민소설집 제3권—땅의 주인들(하)』,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12, 117면.; 김병민 외, 『조선-한국 당대 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2000, 145-145면. 김현순, 「천세봉과 농촌」, 『조선문학』, 1960.7.; 조경덕,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 연구」,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인물정보판>(http://www.cybemk.net/infoText/InfoHumanDetail.aspx?mc=EJ0702&hid=EH010400012240&rightType=3&direct=1) 2022.5.2. 검색.

- 17) 천세봉, 「땅의 서곡」, 천세봉 외, 『농민소설집 제3권—땅의 주인들(하)』,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12. 「땅의 서곡」의 최초 발표지면은 『문학예술』(1949.10)이다. 이 글에서는 『농민소설집』 판본을 인용하며, 이하 인용시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함.
- 18) ‘해방 4주년 기념 소설집’에 수록된 천세봉의 또 다른 소설 「농부」도 토지를 분여받은 농부들이 모범농민이 되어 농업 증산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천세봉, 「농부」, 한설야 외, 『소설집—8·15해방 4주년 기념 출판』, 문화전선사, 1949.8.

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토지개혁이라는 사건 자체가 해방과 동일시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농민들은 무상으로 토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한다.<sup>19)</sup> 그러나 토지개혁 초기의 소설들처럼 냉소적이거나 거부감이 실린 부정적 반응은 아니다. 땅을 갖게 된 막동이 역시 “얼마동안 어리둥절해 있을수밖에 없었”(130면)지만, 민청과 농민동맹 등의 조직과 관계를 맺으며 “호미 하나마 앞길이 내다보이는 것”을 느끼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인가를 치가떨리게”(131면) 깨닫고 각성한다. 땅을 받고 계몽된 모범농민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각성의 서사는 토지개혁으로 비로소 실현된 유토피아를 구축할 수행자로서 정확하게 농민을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배경으로서의 농촌은 어떠한가.

『농민소설집』에서 인물들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전형적 문제는 일제 치하에서 새겨진 상흔이며, 물대기나 가뭄 같은 자연적 조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농토를 개답하는 관개공사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완수하는 것은 “우리건국사업에 옳은 일꾼”(142면)인 농민들의 사명으로 부여된다. 그런데 농민들의 사명과 목표는 역설적으로 토지개혁 이후 북한만의 농촌사회가 맞닥뜨린 난관을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형적 특성상 북한은 옥토인 평야지대가 적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을 개간하고 박토에 관개시설을 설치해 농토를 확장해야 했다. 농민들은 ‘모

19) 토지개혁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표된 소설(이기영의 「개벽」(1946), 이태준의 「농토」(1947), 윤세중(안골동네)(1947) 등)에는 토지개혁 법령의 영속성을 신뢰하지 않거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주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심정적 거부감을 표출하다가 중국에는 개혁을 기뻐하는 농민의 형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농민들의 심적 동요와 혼란에 대해 박남수는 “토지를 못 가진 자에게도 법령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소유 질서가 일거에 재편되면서 “세간에는 인제 가옥도 몰수될 것이라고 불안한 공기”가 떠도는 가운데, “법령은 농민들에게까지도 일말의 불안을 던진 것”이었다는 것이다. 기존 소유권 관념의 잔존 속에서 “순박한 농민들은 강권으로 토지를 얻고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 소작인들이 가을에 수확물을 신고 옛날 지주들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박남수著·우대석編著, 『적지 6년의 북한문단』, 보고사, 1999, 58면.

두' 땅을 분여 받았지만, 마을의 농토 면적과 토질은 각기 상이했고 분여는 결코 '공평'하게 완수될 수 없었다. 이러한 모순과 난관을 농민 주체의 손으로 해결해나가는 이상적 서사는 현실적 난제들의 가림막이 되는 동시에 정확히 그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에게 촉구되었던 노력은 "남조선에 와있는 미제국주의군대 철폐와 그의 앞잡이 망국졸도들을 대러부시고 우리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한 과정으로 선언된다. 이 급작스러운 연결은 농민에게 땅을 분여해준 '김일성 장군'의 은덕이 "우리조국의 통일과 우리의 영원한 행복"(146면)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 구조를 서사적으로 구축하는 방편이 된다.

토지개혁 이후 창작된 북한 소설들에서 토지개혁의 당위와 이상적 지향을 제시하는 패턴은 『농민소설집』의 여러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된다. 예를 들어 천청송<sup>20)</sup>의 「탑거리」<sup>21)</sup>는 지주 최선달이 해방 이후에도

20) 천청송은 1917년 1월 13일 중국 간도 용정 부근에서 태어나, 만주의 영산중학, 광명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명월구 길림 등지에서 교원 사무원으로 일했다. 해방 후에는 연길에서 전문기자로서 있다가 1946년 12월말 귀국하였다. 1947년 1월부터 청진에서 문학동맹도위원회 서기장으로 있다가 10월에 중앙 문예총 지도원으로 소환되었다. 문학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을 거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부 작가로 활동했다. 해방기 작품으로는 「새밥」, 「소금」, 「유격대」, 「꽃다발」, 「그할머니」 등이 있다. (『농민소설집』(1949)에 게재된 저자 약력에서 천청송은 일제시기 문필 활동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일제시기 천청송은 『만선일보』를 주 발표 매체로 삼았던 재만조선인 시단에서 활동하였고 『재만조선시인집』(예문사, 1942)과 『만주시인집』(박관양 편, 제일협화구락부 문화부, 1942) 등에 시를 수록했다. 주로 타향살이의 고난과 향수를 그린 「이역의 밤」, 「드메」, 「상흔」, 「무덤」, 「선구민」(「이주민」, 「주막」, 「설야」, 「강동」, 「묘지」를 묶어 발표), 「우감록」 등의 시편과 수필을 발표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소설과 수필을 창작하였다. 1958년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아 작가단 대표로 소련에 다녀왔고, 1966년까지 천청송의 글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발표된 수필 및 소설로는 「건설적 작품생산에 창발성을 다하겠다」(『민주조선』, 민주조선편집위원회, 1951., 「모스크바에서 온 편지—박승국, 천청송으로부터」, 『문학신문』, 1958., 「어머니」(단편소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유격대—천청송 소설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서해의 주인」, 김재규 외, 『조국의 품 속에서—로력 영웅 투쟁실기』, 직업동맹출판사, 1960., 「중군 수첩에서」(수필),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66. 등이 있다. 현재 남한(및 연변)에서 천청송에 대한 연구는 그의 일제시기 활동, 즉 재만조선인(재중조선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그 연구조차도 천청송의 이름과 재만시기 시편들을 간략히

여전히 세도를 부리다가 결국 토지를 몰수당하고, 고통 받던 농민들이 악덕 지주의 땅을 나눠가짐으로써 그간의 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전형적 서사이다. 더불어 「탑거리」는 토지개혁 이후 계몽된 농민들이 기존에 모시던 ‘성황당’을 파괴하고 대신 그 자리에 ‘토지개혁 기념탑’을 세워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는 결말을 통해 해방기 북한의 ‘미신타파운동’의 이상적 미래상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농맹의 조력으로 아학이 설립되고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된 놀라운 변화, 그 행복을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서사로 일제시기 지주의 악행과 식민 수탈의 불행을 대쌍으로 서술하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주와 농민의 형상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지주와 매관세력을 제외한 모든 농민들은 식민 치하의 착취와 폭정을 고통스러운 삶(죽음)으로 견뎌낸 역사의 증인이자 당사자로서 형상화된다. 토지개혁을 전후하여 이상적 농촌 공동체에 살게 된 ‘농민’들이 『농민 소설집』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반면 「땅의 서곡」의 박 면장이나 기꾸모도, ‘대릿지주’ 정달수의 해방 이후 행적은 온데간데 없다. 그들은 모두 ‘도망’쳤다고만 서술되는데, 다만 정달수를 연상케 하는 물건만 나와도 농민들은 “그놈에 손때묻은 것만 봐두 속이 뒤어서못견디겠다”(163면)며 분노한다. 정달수가 쓰던 고급 모자를 어디서 구해 쓴 청년을 향해 “그놈의 손때묻은 물건이라군 말짱 내손으로 내다놓구 불을 질렀는데 글세 이견 어느짬에 도적질을 했냐”(162면)며 면박을 주고 모자를 망가뜨리는 장면으로 복수는 대행된다. 해방 이후 악덕 친일-지주-일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나 행적은 기술되지 않고, 과거 그들의 악행만이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호용, 『재중조선인 디아스포라문학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10.; 정덕준 외,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이주문학 연구—민족사적 의의를 중심으로」(2004년 협동연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조규익, 『해방 전 만주지역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국학자료원, 1996.

21) 천청송, 「탑거리」, 한설야 외, 『농민소설—자라는 마을』,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

반복적으로 회고되는 것이다. 이상적 농민상에 비해 해방 이후 지주의 형상이 흐릿하거나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지주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 그 기묘한 배경 위에서 농민들이 친일-지주의 토지를 분여 받는 과정은 이물 없이 그려지고, 친일의 악행에 대한 인과로서 토지몰수의 정당성은 자연스럽게 획득된다.<sup>22)</sup>

이처럼 토지개혁을 기점으로 새롭게 개척되는 인민의 삶과 희망찬 시작을 형상화한 「땅의 서곡」은 ‘인민경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힘쓰는 농민들에 의한 감격적인 관개공사 완공의 순간으로 마무리된다. 북한 정권이 농민들에게 요구했던 모범적 인간의 형상과 농촌사회의 예비된 미래가 서사적 공간에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력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목표를 달성한 농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정형화된 결말은 따라서 자연스럽다. “토지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상적 보편성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시기에 수행되고 실천되는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로써 기능”<sup>23)</sup> 하였고, 소설은 그 가시적 재현물로서 현실에 선재했던 것이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던 북한문학의 경향성은 당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문제 해결 모색의 가능성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상적 전형을 만들고 서사적 해결법을 제시했던 북한문학의 태도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당대 현실의 문제들을 고루 경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에서 결국 해결되는 사건으로 형상화되거나 부자연스럽게 원경화된 인물들은 일종의 거울상으로서 해방기 북한사회가 구체적으

22) 「땅의 서곡」의 지주·매판세력의 실종처럼, 천청송의 「탑거리」에서도 토지개혁의 소문을 듣고 “농민조합 땅인가……내……땅이지……해방이 됐더니깐 소작인 맘대루 될 줄 아나”라며 “혼자 성이 나서 어쩔줄모르던 최선달의 풀약선이”는 그러나 토지개혁 직후부터 서술되지 않는다. 최선달 역시 과거의 악행만이 부각되는 가운데 토지개혁을 기점으로 서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위의 책, 219-220면.

23) 공임순, 「민주주의의 (先)정치적 담론 자원과 인민대중의 진정한 지도자상」, 『서강인문논총』 29, 인문과학연구소, 2010, 134-135면.

로 포착하지 않고 담론화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토지개혁 배면의 문제들과 그를 바라보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담지하고 있다. 더불어 개혁 이후의 변화와 병존하며 민족문학으로서의 농민문학으로 구체화되었던 ‘북한문학’ 형성의 한 도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도덕경제의 재구축:

#### 소유·신분 질서의 해체와 ‘자작농’의 부정적 재현 양상

##### —윤시철의 「이양」, 유향림의 「부득이」, 한설야의 「마을 사람들」

그렇다면 『농민소설집』 시리즈에 수록된 모든 소설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한결같은 전형성을 띠고 있는가. 대부분의 소설이 유사한 플롯으로 이상적 농민의 형상을 제시하고, 작품의 문제의식과 메시지 역시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구축된 전형성 안에서 변주를 반복하는 소설들 가운데, 창작방법론의 지침 안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몇몇 인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땅을 분여 받지 못한 농민의 억울함이 형상화된 초기 토지개혁 소설 「안골동네」<sup>24)</sup>의 사례처럼, 『농민소설집』에서 서사적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들은 토지개혁의 이상과는 괴리된 언행으로 토지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반대급부로서 제시하는 역할로 기능한다. 그런데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 반동인물의 형상은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토지개혁의 현실적 난맥상이 기입된 인물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완벽한 악으로 표상되는 지주·친일파가 아니라 함께 토지를 분여받았지만 이미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평범한 자영농·자소작농의 질서, 신분의 위계가 해체되며 머슴과 동등한 처지가 된 평민의 미묘한 감정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반동

24) 윤세중, 「안골동네」, 『문화전선』 5, 1947.8.

인물의 부정적인 심리가 재현되는 배경에는 해방 전 구축되었던 계급·계층의 해체로 인한 갈등이라는 사태가 연동되어 있었던 것이다.<sup>25)</sup>

『농민소설집』에 수록된 여타 소설들처럼 윤시철의 「이양」<sup>26)</sup>은 토지개혁이 완료된 후 2~3년이 지난 북한 농촌사회의 핵심 의제와 지향을 그려낸다.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대부분의 자·소작농이 토지를 분여 받았지만, 지역과 전답의 위치에 따라 농토의 넓이와 토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장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의 전답을 분여 받은 농민도 있었고, 지형의 특성상 물을 대기 쉽지 않은 땅도 많았다. 때문에 1949년 시점까지도 시급히 요청되었던 것은 농수 확보를 위한 관개공사와 토지개

25) ‘농민’이라는 용어로 통칭되지만, 그들은 계급·계층적으로 균질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1947년 군당부 위원장에게 보고된 강원도의 “농민성분 분석조사”의 관한 건”으로, 농민 인구 및 구성 비율의 스펙트럼이 단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김상용(북조선로동당강원도인제군린제면당부 위원장), 「농민성분분석 조사에 관한 건」(1947.7.9), 『잡철(비밀)』, 406면.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I,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구분 리별	고농				빈농				중농				부농				계			
	호수	남	녀	계	호수	남	녀	계	호수	남	녀	계	호수	남	녀	계	인구수			
																	호수	남	녀	
상동리	·	·	·	·	72	206	201	407	11	32	30	62	2	3	1	4	85	241	232	473
남북리	6	6	1	7	141	396	341	737	23	91	73	164	·	·	·	·	170	493	415	908
합강리	1	1	·	1	53	136	129	265	33	84	81	165	·	·	·	·	87	221	210	431
가아리	·	·	·	·	154	559	481	1040	33	96	85	181	·	·	·	·	187	655	566	1221
덕산리	4	3	1	4	144	365	360	725	59	239	255	494	·	·	·	·	207	607	616	1223
덕적리	·	·	·	·	127	192	138	330	11	21	17	38	·	·	·	·	138	213	155	368
가리산리	·	·	·	·	122	376	314	690	5	24	19	43	·	·	·	·	127	400	333	733
귀둔리	·	·	·	·	240	767	695	1462	22	57	48	105	2	8	6	14	264	832	749	1581
하추리	·	·	·	·	120	306	298	604	43	194	152	346	·	·	·	·	163	500	450	950
진동리	·	·	·	·	32	57	29	86	·	·	·	·	·	·	·	·	32	57	29	86
북리	·	·	·	·	126	386	384	770	17	92	46	138	·	·	·	·	143	478	430	908
원대리	8	18	20	38	48	120	94	214	21	55	53	108	·	·	·	·	77	193	167	360
고사리	·	·	·	·	99	234	230	464	14	23	22	45	·	·	·	·	113	257	252	509
계	19	28	22	50	1478	4100	3694	7794	292	1008	881	1889	4	11	7	18	1793	5147	4604	9751

26) 윤시철, 「이양」, 친세봉 외, 『농민소설집 제3권—땅의 주인들(하)』,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12. 이하 소설의 인용시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함.



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었다. 윤시철의 「이양」은 토지개혁 이후 농민들이 ‘2개년 인민경제계획’으로 ‘부락 책임량’과 ‘의무교육준비사업’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모범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좋은 비료 개발, 개답 작업, 농사법 개량 등을 통해 성공적인 이양을 완수한다는 이야기이다. 젊은 농군 기호는 냉상묘(冷床苗) 이양법을 배워 부락 공동묘전에 새 기술을 도입하지만, 삼봉영감이 물을 주는 바람에 반절의 묘가 썩는다. 부락 전체가 맞닥뜨린 위기에 농민동맹 임원들과 기호가 동분서주하다가, ‘외대묘 이양법’ 기술을 받아 어려움 끝에 위기는 극복된다. 농촌에서 농사법을 개량하고 그 원리를 습득해야 하는 이유, 협동정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이다.

부락 농민들의 고난분투 이후 희망찬 미래를 전망하며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열개이지만, 대부분의 소설이 악덕 친일-지주와 순박한 소작농을 재현하는 것에 반해 「이양」은 자작농이었다가 토지개혁을 겪은 인물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대개 친일-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선-악의 대립적 구도로 형상화되는데, 자작농이었던 농민 강준구(원문에서 ‘강진구’, ‘김준구’라는 이름으로 혼용되어 서술되지만 동일 인물)는 절대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한 농민도 아니다. 강준구는 마을 공동의 의견에 불만을 가지고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낸다. 그는 기술지도원 기호의 공동묘판 제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묘를 공동으로 심자는 제의도 “제손으로 못하문 말디 까짓 남의 손을 빌구 말구”(219면)라며 거부한다. 삼봉영감의 실수로 공동묘판이 반절 죽었을 때도 “삼봉이 혼자 잘못을 온부락이 무슨 작업방식을 고치느니 마느니” 하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자 “강준구의 앞장을 따라 나서는 4·5명의 같은 자작농패들”이 작당하여 “웁소다. 아무래두 모주라는 걸 가디구 공동으루 하느니 마느니가 있잖시우”, “순리를 따러야지”라고 말을 보탠다. 그러나 소설은 그들이 고집을 세우고 반대하더라도 온 부락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공들여 그려낸다.

일제시기부터 자작농으로서 “살진 몸을 비슬비슬 흔들”(224면) 만큼 잘 먹고 살아온 강준구는 마을 공동 사업에 반기를 들고, 개인의 몫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다. 그에 동조하는 자작농패들 역시 부정적인 반동인물로 그려진다. 소설에서 강진구를 반복적으로 수식하는 말이 ‘자작농 강준구’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친일-지주가 악으로 형상화되는 스테레오타입의 재현처럼, 자기자본을 지니고 땅을 일구며 살았던 ‘자작농’들은 이상적이지 않은 반동농민의 전형이자 교화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강준구가 공동이양제에 반박하는 논리는 정확히 자본주의-개인주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 공동이라니 이젠 말만 들어두 입에서 신물이 나우다. 농막이나 작인들끼리하던 소계리나 품아시라문 또 몰라두 온 부락이 와—때 들고 나서서 척 하문 공동이라니 것두 번번이 잘되문 몰라두 떠드는 곳판에 거렁이 사태라구 이건 정말 털구 나왔을 판이디 누그레그 노릇을 하갔슴메—.” 다른 ‘자영농’들도 “삼봉영감 혼자 잘못을 부락 공동으로 매꾸다니 무슨 말이우 이젠 공동이구 랭상이구…… 나는 나대루 하갔쇠다.”(227면)라며 건건이 반기를 드는 등 ‘식민지 자본주의’의 삶의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시기부터 유지되어 오던 자본주의 본위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일거에 부정하는 신체제의 도입에 동조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인물이 1949년의 북한 소설에 ‘자작농’으로 재현되고, 그 인물이 ‘자작농’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토지개혁을 다루는 대부분의 소설들에서 거의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는<sup>27)</sup> 친일-지주-일본인들의 해방 이후 행적, 땅을 몰수당한 인물의 입장에서 발화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소유 관념과 관습이 해체되는 가운데 몰수의 서사적 정당성과 그것을 수궁하는 인물 형

27) 삼봉영감이 젊은 시절 머슴을 살았던 집의 지주 역시 “지금은 탄군으로 이주해간 옷부락의 큰 지주댁”(241면)이라고 짧게 서술될 뿐이다.

상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현실에서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소지주는 못 되지만 나를 자작농이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기존 소유 관계를 부정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갖는다는 토지개혁의 이상이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토지개혁의 성과를 상찬하기 위해 창작한 소설에서 굳이 반발하는 지주 세력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옮기며 토지개혁 배면의 부정적 서사를 그럴 까닭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작농’이 공동의 결정에 매번 반기를 들고 불평하는 인물 강준구로 재현되고, 그럴 듯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의 입을 통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설파되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강진구의 사고구조 내에서라면 그가 새로운 소유 질서 속에서 공산주의를 체화한 ‘경제적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되면 몰라도 못 되면 은부락이 내해네해없이 망할 판”이고, 그때엔 “공동으로 굶구 공동으로 비라리를 떠나는”(228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논리적’ 판단에 따라, 강준구는 마을 결정을 거스르고 애초 자신 몫으로 나누어졌던 묘를 훔쳐 달아나버린다.

자본주의적 합리에 기초한 이 자연스러운 행동은 서사에서 이기적이고 반동적인 사상으로 규정된다. 강준구를 설득하기 위해 동원되는 말은 “공동이양으루 일품을 덜구”,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대묘이양”을 통해 “로력을 공동으로 한다는건 선진 로동자들의 집단로력을 배우는 첫길”(228면) 이라는 그에게 체감되지 않는 이상론이다. 삼봉영감은 “우리 손으로 세운 인민주권을 튼튼케”하고 “새로 이룬 나라를 위하여”(246면) 방향을 왜 따르지 않느냐며 답답해한다. 결국 소설의 결말부는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한 강준구가 회개하여 잘못을 빌고 새 농민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그려낸다. 강준구가 주장했던 자본주의적 사고와 논리는 “옛날 뽕새루 디주행세만 뽕뽕 내는”(253면) 것으로 간단히 규정되고, “진짜 디두두 아니구 이남으루 도망갈 열간이 반격자두 아닌 담에야”(252면) “교양을 좀 폭—주구”,

“두더하구 가르켜줘야 한다”(253면)는 교조적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강준구와 자작농 네 농호를 위해 하루 더 공동 이양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다. 삼봉영감은 “강준구의 피둥피둥 살찐 몸집”과 “유들유들 기름끼 도는 얼굴”(255면)을 떠올리며 분개했지만, 결국 논에 나가 강준구와 어울려 농악대 팽과리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소설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매끄러운 화해로 봉합되었지만, 강준구의 회개에서 그 이유나 감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잘못을 ‘빔었다’라는 사실만 언급될 뿐, 삼봉영감이 강조하는 마을 공동체와 새 나라를 위한 이상에 강준구가 찬동하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강준구의 회개는 “제잇속이 틀리니깐 김돌아드는데아니가?”(253면)라고 의심될 만큼 그 자신의 이득이 위태로워진 순간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나라를 위하겠다는 다짐을 말하는 삼봉영감의 옆에서 강준구는 “곰방대를 비스름이 들고 서서 떠나는 어린 학생들의 뒷모습을 생각 깊은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 모습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간주한 삼봉영감이 “그의 살찐 손목을 덤석 잡아 나”(260면)꾸며, 함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해 나아가고 외칠 때도 강준구의 대답은 서술되지 않는다. 그저 두 노인이 길을 걸어가고 그 주변으로 ‘힘찬 새노래’가 울려퍼지는 것으로 화해가 성사되고 모든 갈등은 종료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토지개혁과 공산주의 공동체의 집단행동에 심정적으로는 결코 동조할 수 없지만 작은 땅이나마 포기하고 남한으로 내려갈 수도 없던 소지주 내지 (반)자작농들이 새 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유동 자산이 적어 땅을 버리고 남한으로 빈손으로 갈 처지도 못 되고, 그러나 토지개혁의 정당성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도에서 신체제에 순응해나가는 도정이 강준구의 서사에 담겨 있는 것이다.

『농민소설집』의 또 다른 소설, 유헥림의 「부득이」에서도 토지개혁의

이상을 체현하지 못한 반동인물은 갈등 끝에 회개와 화해의 결말에 도달하지만, 서사적 변곡점을 만든 계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부득이」<sup>28)</sup>의 배경이 되는 핏골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부득샘의 처녀귀신 이야기는 지주의 횡포와 식민 통치에 고통 받던 마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sup>29)</sup>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부득샘을 두려워하지만, 부득샘은 마을 농토에 물을 대주는 소중한 샘으로서 그곳에 가까운 농토일수록 수확이 좋다. ‘부득이’는 지주네 집 머슴살이를 하던 노총각 룡문이가 장가를 못 가 부득샘의 처녀귀신을 만나러 간다며 붙인 별명이다. 룡문이는 자신의 신세를 비웃는 ‘부득이’라는 말을 몹시 싫어하고 화도 냈지만, 해방 이후에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부득이’라는 별명 덕분에 일천삼백여 평의 기름진 부득샘 첫배미를 분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룡문이는 살림살이 기를도 잡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혼인도 하게 된다. 이처럼 해방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대비되어 묘사되는 가운데, 룡문이는 농맹에서 권하는 ‘온상묘’ 재배를 숭신하여 실행하는 모범농민으로 거듭나 풍작을 맞는다.

토지개혁 이후의 일본인과 지주들의 현재는 역시 일절 서술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의 악행으로만 재현되며, 현재의 삶에 일말의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 소설의 현재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지주의 저항이나 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농법인 온상묘의 성공 여부, 그리고 룡문이-최서방 영감의 다툼이다.

최서방 영감은 마음속으로 룡문이를 “남의 집 늙은 총각 머슴 부득이로 갈봐오던 사람”(144면)인데, 농사와 관련하여 룡문이에게 타박을 듣게 되

28) 유항림, 「부득이」, 『농민소설—자라는 마을』, 한철야 외,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8. 이하 소설의 인용시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함.

29) 20여 년 전 어떤 조각인의 딸이 늙은 지주영감의 첩으로 끌려가게 된 신세를 저주하여 부득샘 늪에 빠져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원혼이 처녀귀신이 되어 밤마다 나온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이다.

자 “며칠 전까지두 남의 머슴살이나 하던 놈이 제 세상 만났다고 건방지게 웬 야단이야. 애 부득이 자식아.”(146면)라며 주먹으로 룡문의 얼굴을 갈긴다. 룡문은 “머슴사리 했으면 어떻단 말ियो. 전엔 머슴사리 했어두, 지금은 부득셈 첫배미가 내해요.”라며 “어긋한 생각”(147면)에 눈물을 흘린다. 이에 마을 사람들과 농민위원장도 최 영감에게 “어젯날의 머슴은 지금은 그런 호통을 용납하지 못할거웨다.”, “언제 지주가 됐기에 그런 호통이요”(152면)라며 ‘자아비판’을 요구한다. 그러자 최 영감은 허리를 굽신하여 자아비판하고 순식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서술된다. 이러한 사건은 토지개혁으로 인해 지주-소작농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자작농-소작농-머슴(품팔이) 간의 위계와 신분제가 무너진 해방 이후의 북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최 영감은 그 역시 “자기도 땅 한 이랑 없는 빈농”(145면)이었지만 내심 그 평등해진 관계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머슴살이를 하던 룡문이가 마을에서 가장 좋은 부득셈 첫배미 땅을 분여받아 모범 농민이 되고, 도리어 자신에게 농사에 대해 버젓이 알려주게 된 한층 더 기울어진 관계를 최 영감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 영감과 룡문이와의 갈등에서 농토 분여를 둘러싼 내밀한 감정과 최 영감의 구체적 감정은 서술되지 않는다. 그들은 토지를 분여 받은 ‘농민’이라는 공통성으로 묶이며, 갈등은 오직 머슴의 신분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웅졸한 늙은이의 말실수 때문인 것으로 수렴된다. 최 영감에게 큰 망신을 주게 된 룡문이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를 찾아가서 미안함을 전하는데, 최 영감은 “지금 태도가 아직 남의 집 머슴노릇 할 태도거든. 넘자는 지금 우리동네 모범농민이야. 그러니까 아주 뼈젓해지란 말야.”(155면)라고 다독이며 화해주를 나눠마신다. 내심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영감은 룡문이 빈 손으로 신접살림을 꾸릴 때 된장사발도 주고 연장도 빌려준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실상 룡문이 최영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과거의 관계가 반대로 역전된 것임에도, 자아비판을 통하여 일거에 이루어진 최영감의 참회와 마을어른모범

농민에 대한 쌍방의 예우로 위계의 전복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이다.

소설이 서술하지 않는 것은 또 있다. 「부득이」는 첫배미를 받은 룡문의 기쁨은 상세히 묘사했지만, ‘수리불안전답’을 분여 받은 사람들의 분노나 질시의 감정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환한다. 그로 인한 갈등은 서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통해 곧 좋은 농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당장의 현실적 문제들을 임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모두가 치열하게 관개공사에 참여하고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상적인 모습은, 농민들이 왜 그러한 문제에 몰두하여 혈안이 되었는지의 전사를 삭제한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이 왜 그렇게 집착적으로 힘쓰는지를 말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서사 전략은 『농민소설집』의 다른 소설들에서도 반복된다. 공동체의 이상과 지향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서사에서 지워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이 돌출되며 새로운 지향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양」과 「부득이」의 배경이 일제시대부터 시작되는 반면, 한설야의 「마을 사람들」<sup>30)</sup>은 토지개혁 이후 형성된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한다. 후술하겠지만 토지개혁 3년차 이후 시점의 소설들은 식민 치하의 고통 묘사에 지면을 할애하는 대신 당대 북한 농촌사회에 요청되었던 핵심 의제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이상적 미래를 위한 방법론을 수행하는 긍정적 인물의 형상화에 공을 들인다. ‘마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소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협심된 노력이다. 토지개혁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애국미를 바치고, 이웃의 모내기 밭갈이를 돕고 씨를 나눌 만큼 돈독해진다. 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해방 두툼을 지난 이날이때까지도”, “구두쇠 문맹이 아직 여나무명 남아있다”는 것이다. 토지개혁 주제의

30) 한설야, 「마을 사람들」, 『농민소설—자라는 마을』, 한설야 외,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8. 이하 소설의 인용시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함.

소설들은 농민의 각성을 촉구하며 그를 위한 교양을 반복적으로 서사화 하는데, 「마을사람들」은 농민의 정치적·경제적 주체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문맹퇴치운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글이 ‘가마니’가 된다되? 쌀이 된다되?”(19면)라는 문맹의 어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청년들의 과업”(9면)이 된다. 청년들이 우물가까지 흑환을 들고 다니며 문맹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김일성장군”이라는 다섯글자”(20면)를 꼭 읽게 해야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다. 문자 습득을 넘어 정치 리더러시를 해득하는 것의 중요성이 설파되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헌법”(23면)이라는 글자를 배울 때에는 “민주주의가 색종단 말이구나. 민주주의가 되니 인민들이 좋단 말이지무시기냐.”(25면)라는 답을 이끌어내며 글자는 몰라도 그 원리를 이미 깨달은 중년 어머니를 통해 북한 사회가 인민들에게 체감시킨 민주주의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왜놈의글을 업새고 우리글을 모두 조선사람에게 왕겨주는것도 민주주의 덕”인데, 글을 모른다면 “민주주의가 다못되”(26면)니 글을 배워야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문맹퇴치운동’의 필요성, 글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 다시금 설파하는 것이다. 영특한 청년들은 중장년 여성들이 ‘고공품경쟁’을 하듯이 ‘한글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문맹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일정한 경쟁 속에서 함양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개간과 증산, 문맹퇴치 등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협력하지 않는 반동인물 최기수와 그의 행복하지 못한 결말을 그려내는 전략을 활용한다. 최기수는 “해방전에는 던기수를 다니면서 뒷산에 조고만 과수원까지

31) 『농민소설집 제1권』에 수록된 이태준의 「호랑이 할머니」도 문맹퇴치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호랑이 할머니」는 자그마한 산골마을에 사는 예순다섯 살 할머니가 문맹퇴치사업의 성과로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작품의 첫 발표 지면은 미상이지만 이태준의 창작집 『첫 전투』(문화전선사, 1949.11)에 수록된 「호랑이 할머니」 말미에 적힌 1946년 8월 14일이라는 날짜를 보아 해방 1주년을 맞아 창작된 소설임을 추정할 수 있다.



가지고 있”었고, “이동네에 단 한사람밖에 없는 간이농업학교 출신”(34면)이다. 그는 “이동네에서는 비교적 넉넉히 사는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늘 지보다 못되기를 바라는 심보”로 “우리땅이라구 꿀비내리”(35면)겠냐며 농사 비법을 공유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공동체에 반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최기수에게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인정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일찍 상처(喪妻)한 최기수는 “일잘하고 똑똑하고”(42면) 어여쁜 마을 처녀 금복이와 혼인하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유(私有)와 공유(公有)를 갈라 구분하고 그 소중함을 다르게 인식하는 이기적인 품성의 최기수에게 “동네 인심”은 좋을 리 “천만 없는 것”(44면)이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최기수에게 공동의 소유나 공동체의 가치관이란 수용 불가능한 원리이다. 동시에 금복이 가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사상은 이기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것으로서, 특히 ‘문맹퇴치’라는 공익을 위해 매일 후판을 들고 나가는 영민한 여성 금복이에게는 더욱 받아들여질 수 없다. 금복이는 사람들을 위해 개간과 증산 계획을 짜며 “이제는 상당한 농사리론가”(54면)가 된 이상적 청년 수길이와 혼약을 맺는다.

최기수의 부정적 언행과 그에 대한 처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을 개간사업은 “나라땅을 널कु는” 일이므로, “개간에 들지않은 집에서”도 합심하여 “힘으로 또 소로 도아주”(60면)자는 합의에 최기수는 정면으로 반박한다. 최기수는 개간을 하면 손이 모자라고 소도 없는 상황에서는 농량도 달리고 이편저편이 모두 부실할 것이라는 현실적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최기수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배우지 못한 문맹 육군통사와 금복이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반박된다. 결국 “최기수의말은 자기혼자만 잘살구 우리 동네 다른 집에서는 옛날 처럼 무지와 빈궁에 그대로 남아있게하자는 심사”이고, “우리 동네에 해로울뿐아니라 나라를 해치는 자본”(65면)이라고 일축된다. 그동안 최기수가 “농민들에게 옳지못한 선전을 많이 해

온” 것, 즉 “추경을 반대하고 감자와 벼이모작을 반대하고 또 개간사업을 반대”한 일에 대해 “자비판”할 것이 종용되고, 그는 “일어서서 이알는사람 불부는 소리하듯 잘알아들을”(66면) 수 없는 소리로 자비판을 한다. 최기수 의견의 타당성을 가르는 것은 그의 학력과 전문성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실에 대한 평판이라는 새로운 도덕질서의 잣대이다. 이처럼 공동체의 합심으로 운영되는 ‘공산(共産)’의 마을에서 개인의 이질적인 판단과 감정은 마을 발전의 방해 요소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최기수의 반동적 의견을 다수의 결정으로 저지시킨 마을 사람들은 개간과 추경을 실시하고 질소비료도 뿌리며 풍년을 도모한다.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마을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한글학교 졸업식”(69면)에 참석하는 경사도 생긴다. 이양철이 되자 학생들은 동구갈일에 진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농민들을 응원하고, “집집에서 쌀을 모아내여 공동취사”를 하며 “논도 사람도 좋은 세월”(81면)이 찾아온다. 이처럼 이상적인 공동체의 탄생 속에서 최기수는 자신의 소신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의 변화가 진정한 참회에 의한 것인지, 공동체 속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는, 들리지도 않게 읊조려진 그의 ‘자비판’만큼이나 불명확하다. 옷마을보다 먼저 모내기를 끝내서 경쟁에 승리했음에도 “옷말을 도와줘야겠”(84면)다는 수길이의 의견에, 최기수는 “앙이 우리 이기쟁였는가”라며 반대의 의견을 말한다. 이기고도 또 일을 한다면 “이기는 도리어 손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최기수는 픽 웃는다.” “이제는 동네공논에 순순히 따라가야할것을 그는 잘알고 있었기때문”(85면)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돕지만 내일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일이 생기는” 것이라는 수길의 말을 “최기수는 그저 웃고 들을뿐이다.” 그러나 정 싫다면 대신 우리가 그만큼 더 일하면 되니 쉬라는 말에 “최기수는 도리어 다급한 소리로”(86면) “앙이, 나도 하겠소다. 내 놀기싫어하는말이 앙이오다.”(87면)라고 대답하며 황급히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에 공감하지 않으

면서도 강박적으로 동참하는 최기수의 모순적 행태와 부정적 품성은, 그가 순순히 공동체의 뜻에 따름으로써 문제없이 봉합되는 것이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의 원리와 이상에 “글세 그건 나도 잘 아우다”(86면)라고 밝히면서도 건건이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결정을 거스르지도 못하는 최기수의 결말은 공동이익제와 공동책임에 반대하던 「이양」의 자영농 강준구와 흡사한 지점이 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자신하고 공동책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자작농(출신 성분) 형상이 사상적 교화 없는 체제 순응이라는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토지개혁이 완료된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은 “동네공논에 순순히 따라가야할것”을 간파하고 새로운 생존의 방식을 택하거나, 아까운 땅을 모두 버리고 빈손으로 월남을 하는 것 외의 선택지를 찾을 수 없다. 해방 전까지 자영농들의 배타적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던 자본주의적 삶의 원리가 현 체제와 반하는 사과의 근거로 작용하며 그들의 삶을 속박하는 가운데, 한줌의 자산(토지)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성과 실천이 괴리된 침묵 속에서 그저 동조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서사와 중심인물들은 그들의 내적 갈등이나 심리를 의도적으로 포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 인물인 반동인물들의 ‘틀린’ 생각을 발판으로 ‘옳은’ 생각의 방향만을 ‘전형적’으로 부각할 뿐이다. 최기수의 생각에 이겨도 이득이 없는 경쟁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서사 안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문맹퇴치, 고공품경쟁, 황무지 개간, 모내기, 추경 등—은 합심과 경쟁 속에서 더 큰 진가를 드러내고,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제로 제시된다.

이처럼 해결 가능한 난관과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이상적 공동체의 서사는 완결된다. 이러한 형식은 공동체의 도덕과 이상이 실현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재현하며, 토지개혁 3년차를 맞은 현재와 미래를 상상적으로 연결시킨다. 이 과정에서 체제에 순순히 동조하지 못하는 반동인물들이 일으키는 부분적 갈등은 순차적으로 봉합되고, 공동체는 이

내 안정을 되찾는다. 그들은 이상적인 농촌마을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 행태와 사상의 본보기로 제시되고 긍정적 청년상과 대비되며 소설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완결성을 지닌 허구적 서사에서 ‘그렇듯한’ 논리와 판단에 따른 가상의 인물과 사례들이 단호하게 처벌받음으로써, 그것을 동시에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표면적인 회개의 계기로 설정되는 것은 다수의 비난과 ‘자비판’을 통한 강압적 반성이며, 인물의 내밀한 감정의 변화나 각성된 사상의 면면은 서술되지 않는 것이다. 서사적 공간에서 이룩되는 공동체의 이상과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갈등이 조화롭게 화해되는 양상은 이후 창작되는 소설과 현실세계에서 일종의 가이드이자 참조항으로 제시된다. 토지개혁 이후 북한 사회의 도덕경제는 이처럼 ‘경쟁’과 ‘협동’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두 가치를 표방한 속에서 일률적으로 재구성되어갔고, 명백하게 발화될 수 없던 미묘한 돌출까지를 끌어안은 문학은 급작스러운 회개와 서사적 공백으로 그 흔적을 부지불식간에 남겨 두었던 것이다.

#### 4. 개혁 이후: 공통의 풍경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윤세중의 「어머니」, 리춘진의 「자랑」, 황건의 「십릿벌」과 「산곡」

『농민소설집』의 일부 소설들이 「개혁」의 플롯을 벗어나 일제시기가 아닌 토지개혁이 완료된 이후의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해방기 ‘북한문학’의 한 변이의 양태를 보여준다. 토지개혁 이전의 갈등이 모두 소거된 세계는 땅의 주인이 되어 각성한 농민들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분투하는 서사를 그린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현재에 이제 과거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드물게 회상으로만 떠올러지거나, 현재를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뿐이다. 소설은 점차 토지

개혁을 기점으로 농민 해방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북한의 ‘해방공간’을 역사화하는 서사로 고착화되어간다.

예컨대 황건의 「십릿별」<sup>32)</sup>은 현물세를 낸 뒤 더욱 농민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마을이 풍년을 맞고, 역사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과 북한에 중앙정부가 수립되는 순간의 감격에 잠기는 서사를 그려낸다. 윤세중의 「어머니」<sup>33)</sup>는 “토지분여의 혜택을 안받은집이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토지의 주인”(56면)이 된 “좋은 세상”(51면)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전과 아주 다른사람이”(55면) 되어 “단결과 열성”(57면)으로 “고공품생산 완수기한”(58면)과 현물세 “완납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생산돌격”(56면)하는 모습을 그린다. 나이 많은 어머니와 만삭의 임산부인 며느리가 읊으로 공작을 하러 간 아들의 뒤통까지 부여된 엄청난 “할당 책임량”(70면)을 하루 앞당겨 완납하고 “동네의 자랑”(95면)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토지를 받아 살림이 안정된 농민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리춘진<sup>34)</sup>의 「자랑」<sup>35)</sup>에

32) 황건, 「십릿별」, 『농민소설집 제3권—땅의 주인들(상)』,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12. 「십릿별」이 분량이 상당한 중장편 소설이라는 점이 『농민소설집 제3권』의 상편과 하편을 나누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십릿별」의 최초 발표 지면은 북조선농민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농민』(농민신문사, 1949.7~8)으로, 총 2회에 걸쳐 분재되었다.

33) 윤세중, 「어머니」, 『농민소설집 제1권』,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4. 이 소설의 인용시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함.

34) 리춘진은 1912년 4월 29일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28년부터 17년간 일본 동경 타이어공장에서 직공 생활을 하다가, 1945년 귀국하였다. 해방 후에는 북청에서 예술련맹 조소문협 각위원장, 로동당북청군당문화인부장을 거쳐 북조선직업총동맹 군중문화부 지도원을 지냈다. 해방 전 작품으로는 일본 동경에서 발표한 「뽕찌」, 「개」, 「전두식」 등이 있으며, 해방 후에는 「사냥」(『창작집』, 국립인민출판사, 1948), 「안나」(1948), 「화염」(『로동자』, 1948.5), 「강철수」(『소설집(8·15해방 4주년 기념 출판)』(문학조선사, 1949), 「三八선남파무밑에서」(『청년생활』, 1950.2), 「눈보라」(『청년생활』, 1950.4), 「병사에서」 등을 발표하였다. 조소 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에서 출간된 『해방의 은인』(조소출판사, 1959)에도 리춘진의 글 「이완 뽕찌로워치 대위(오체르크)(실화(實話), 인용자)」, 「안나(소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안나」(1948)는 리춘진의 대표작으로서 한국에서 발간된 『북한문학(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신형기·오성호·이선미 편, 문학과지성사, 2007), 『력사의

서 한층 구체화되어 반복된다.

「자랑」의 배경이 되는 동흥리는 다섯 집을 제외한 모든 가구가 소작농이었고, 머슴살이를 한 사람만 60명에 이르는 “빈궁하고 이름없던” 부락이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이후에는 “군내에서 현물세를 제1착으로 완납”하고 “애국미를 군내에서 제일 먼저 많이” 내며, “문맹(이부락은 거지반 문맹이었다)을 도내에서 제일먼저 퇴치한”, “도내에서도 우수한 모범부락”(103면)이 된다. 「자랑」은 해방 이후 모범부락 동흥리의 ‘자랑’이 된 최원식 영감을 통해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은 농민들의 지향점을 안내한다. 최원식 영감은 해방 전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병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귀머거리’처럼 살았던 인물이다. “왜놈과 지주에게 최후의 핏덩이까지 착취당한 불쌍한 농민”(112면)이었던 그에게 ‘해방=토지개혁’은 일대 변혁을 가져온 기점이 된다. 논 1,500평과 밭 500평을 분여 받은 최원식 영감은 ‘토지개혁 경축대회’에 소련 군복을 입고 나가 춤을 추는데, 그때부터 그는 ‘대장’이라는 멋진 새 별명을 갖게 된다. 농민을 경제적·정치적 주체로 호명하며 토지개혁을 추진했던 북한 사회의 변화처럼, 새로운 별명에 걸맞게 ‘대장’ 영감은 자발적으로 동네 강변 돌밭을 개간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남들은 모두 안될일이라하였”(120면)지만 개간사업은 기적 같은 성과를 얻게 된다. “해방전 30여년 소작농으로 지주에게 시달려 고생한 흔적은 이 로인에게서 찾아볼수가 없”(121면)을 만큼 ‘해방’은 그에게 행복한 새 삶을 선사한 기적이었던 것이다.

각 소설의 세부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유토피아니즘의 재현과 목

자취—북한소설』(김종희 편, 국학자료원, 2012)에도 수록되어 있다. 「리춘진 선생 략력」, 리태준 외, 『농민소설집 제1권』,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4, 99면. 「저자약력」, 한설야 외, 『소설집—8·15해방 4주년 기념 출판』, 문화전선사, 1949.8, 307-308면. 김진영, 「언어의 기념비—해방기 ‘조소(朝蘇)친선’의 서사와 수사」, 『러시아연구』 31(1),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1, 102면.

35) 리춘진, 「자랑」, 리태준 외, 『농민소설집 제1권』,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4. 이하 소설의 인용시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함.

표는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선전문학의 ‘전형성’이라는 명백한 특성에서 벗어나, 전형성이 구축되어가던 과정과 맥락 그리고 전형성의 세부와 바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의 방향성을 추동하는 복합적 힘은 단지 공식적 창작방침 및 사상성 등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토지개혁 이후 농민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삶의 방침들, 즉 “식량이 부족한 북조선을 식량이 유여한 북조선으로 만들”기 위해 “증산에 총궐기”(129면)하고, 현물세와 애국미를 가장 먼저 헌납하며 “자기이름도 쓰지못하는 문맹이 2백명 이상”(131-132면)이 “서로 경쟁”(133면)적으로 글을 배워 ‘문맹퇴치사업’을 완료하는 것 등은 현실정치 차원에서 외치던 ‘전형적’ 목표였던 동시에, 이상향을 추동하는 최대치의 현재적 상상이었을지 모른다. 해방기 북한 사회의 핵심 의제들과 그 개혁에 동참하는 평범한 인민들의 삶의 재현은, 현실에서의 토지개혁이 완수하지 못했던 농촌 사회의 현안 과제들을 서사적 공간에서 상상적으로 완성하며, 구체적 대안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조선의 새로운 현재와 이상을 서사적으로 실체화하는 작업은 건국의 밑거름이 될 해방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위에서 ‘조선문학’의 역할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두 개의 유토피아를 쫓는 작업이었다.

이처럼 토지개혁 직후에 발표된 소설들에 비해 토지개혁 3년차인 1949년에 발표된 소설들은 단지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의 행복한 현재를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이상적인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개인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을 서사적으로 재현한다. 소설의 전반부에 일제시기의 폭압으로 인한 고통이 반드시 상술되었던 초창기 토지개혁 소설의 플롯과 비교하면, 서사를 통해 부각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땅을 받은 농민의 자세와 사명감을 특히 강조하는 작품들의 배경 시점이 토지개혁 이후로 설정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토지개혁 이후 북한 농촌사회가 당면했던 난제 해결과 ‘민주개혁’을 위한 정책방침의 실현을 개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른 것으로 형상

화함으로써 이상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고 그 구체적 상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즉, 토지개혁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토피아니즘적 미래를 강박적으로 서사화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의 저간에는 그러한 이상세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엄연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농민소설집』 기획은 토지개혁 3년차를 맞아 북한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서사적 공간에서 완결적으로 재현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각성한 농민들의 노력으로 당면 위기들을 극복하는 희망적 서사에는 그러나 토지개혁이 초래한 심각한 난제들이 기입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토지개혁 3년이 지나서도 개간과 관개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농촌의 사정과 농사 결과가 좋지 않은 해에도 마치 공출 당하듯이 현물세를 내야 했던 현실, 분여 받은 토질 차이에 대한 불만, 계급·계층의 위계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축되는 과정에서의 갈등, 소유 관계와 관념의 변화에 따라 재산을 몰수당했던 중소지주들의 불만 등 현실에서의 문제들은 오히려 정확히 반대되는 관점에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정면으로 보여주려는 서사 전략을 통해 소환되었다. 서사적 세계에서 농민들은 서로 더 많은 현물세를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옥토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와 이주·동원에 앞다투어 참여하며, 기존 소유재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은 땅의 토질과 면적에 불만을 갖지 않고, 머슴이 자신을 가르치게 된 신분 전복의 상황도 너그럽게 수용한다. 이렇게 이상으로서의 토지개혁은 서사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봉합을 완료하였으므로, 남은 과제는 서사와 대쟁을 이루는 현실과의 간극을 좁혀나갈 농민들의 각성과 자발적인 노력임이 설파되는 것이다. 또한 문맹퇴치와 고공품경쟁, 황무지 개간, 협동정신, 경쟁의식 등 당대 농촌사회에 요청되던 현실적 과업들을 점차 구체화하게 된 창작 전략의 변천은 토지개혁 이후 3년 동안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진화된 ‘창작방법론’의 양태를 담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개혁 이후의 이상적 미래를 확신하는 소설적 재현에서 ‘이주사업’과 ‘개간’이라는 북한의 주요 토지정책들을 형상화하는 작업은



수월했을까. 황건의 「산곡」은 ‘도래할 미래의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농민 소설집』에 수록된 일련의 소설들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황건의 「산곡」<sup>36)</sup>은 『농민소설집』 발간보다 1년여 앞선 1948년 1월 『문학예술』<sup>37)</sup> 창간호에 발표된 소설로서, 오지 않은 미래를 서사적 공간에서 재현해야 했던 작가들의 난망이 역설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작품이다.

「산곡」의 농민 ‘하몽’ 역시 토지개혁을 계기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인물이다. 일제시기 살길이 없어 고향 함주군을 떠나 장진으로 갔던 가족들(부모님, 누이동생, 아내, 딸)이 모두 죽고, 하몽은 떠돌이 생활 끝에 “읍에 내려가 농군(머슴)살이”(100면)를 하게 된다. 본명인 춘돌이 대신 ‘함흥’에서 온 것으로 쳐 아무렇게나 불리던 ‘하몽’은 “나면서부터 그랬지만 해방 직후까지도 개 신세”(101면)였다. 그러나 토지개혁 이후 그의 삶은 변화한다. “이름은 여전히 ‘하몽’이되 세상이 달라”져서, 하몽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토지를 아흐레 갈이나 부여”(102면) 받고 집도 짓고 이장영감네 딸 고분이와 혼인하는 “꿈 같은 일”(102면)을 연이어 겪는다.

“칠팔년을 에미없는 개새끼처럼 굴러다니며 찬밥 식은밥 가릴사이 없다가 토지분여를 받”(114면)은 하몽의 인생역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토지개혁 이야기로 끌어치고 누구는 어떻게 됐느니 잘된사람 못된사람 짚어가는 잘된사람들 이름속에 ‘하몽’의 이

36) 황건, 「산곡」(최초 발표는 「산곡」, 『문학예술』 1, 1947.4), 『탄맥—황건 단편집』, 문화전선사, 1949. 이 글에서는 『탄맥—황건 단편집』 판본을 인용하며, 이하 인용시 본문의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함.

37) 『문학예술』의 전신은 북조선예술총연맹의 기관지이자 해방 직후 북한에서 처음 출간된 잡지인 『문화전선』(1946.7)이다. 계간으로 발행되던 『문화전선』은 5호까지 문학작품들을 수록하였지만, 이후 문학전문지인 『조선문학』이 탄생하며 문학작품들을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문학』의 분화 이후 『문화전선』은 문학을 포함한 문화 일반과 정치·사회 문제를 다루게 된다. 『조선문학』은 2호까지만 발행되었고, 1948년 1월부터 『문학예술』이라는 새로운 제호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황건의 「산곡」은 제호를 바꾼 『문학예술』 창간호에 수록되었다. 김재용 외, 「북한의 문학잡지」, KBS 남북교류협력단 편, 『KBS 통일방송연구 제18권—북한의 문화·예술』, KBS, 2008, 13면.

름도 떠들썩”(114면)하게 회자된다. 성실하지만 가난 탓에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던 하몽은 북한 토지개혁의 놀라운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기능한다. 따라서 “잘된사람”이야기는 있지만 “못된사람”의 이야기는 서술되지 않는다. 산곡이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서사적 공간은 오직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모습만으로 채워진다. 서사의 긴장을 일으키는 사건마저, 더 윤택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과 갈등으로 재현된다.

“골안에서도 제일 좋은 밭”(127면)의 주인이 되어 성실하게 일하며, 현 물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송아지와 아내의 유동치마를 사줄 희망에 들떠 있던 하몽은 농민동맹추천으로 “고지대 화전민에 대한 이주계획”(121면)에 선발된다. “함주 정평지대에 이주”하여 “당도하는 땅에는 농토야 말할 것없고 집이며 소며 중자 식량 의복까지도 준비되어”, “모든점에 있어 이곳 산속생활과는 비교할수도 없게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선전에도 하몽은 망설인다. “북조선 각지에서 일어나고있는 관개공사”(122면)로 옥토를 확장하여 “꿈같은”(124면) 생활을 하게 해준다지만, “어쩐지 앞이 캄캄해지는것 같은”(132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하몽을 제외한 사람들은 “잘살곳에 보내 주겠다는데 싫다는 법이 있음?”(132면)이라며 그를 타박한다. 그러나 “백성을 위한 모든 좋은것을 다 지시하신다는 김일성 장군”의 “한량없는 마음”(134면)을 거스를 이유가 없음이 “옳은 리치”(135면)라는 것을 깨닫은 후에도 하몽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번세번 옳은리치”(135면)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옳은리치대로만 되어가던 세상인가? 세상 바뀌운 어제오늘보다도 너무나 길고 모질던 그전 날이 더 캄캄하게 앞을 막아서는 것”(135면) 같은 두려움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고마웁던 이 산곡과도 혹은 리별해야 될런지 모르겠다는 고연한 허황한 마음”(136면)은 “좋다는 평야옥전에 모셔다 디린다는데”, “남이 추천만 해준다면 춤추면서 가겠”(139면)다는 농민위원장 준호에 의해 단박에 부정된다. 이주를 앞두고 혼란과 불안감으로 갈등하는 하몽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개혁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우둔한 마음”(140면)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결국 하몽이 “처가사집에서나 가치가가게 되었다면 생각하는것도 이저는 부끄러운 마음”(141면)이라고 생각하며 이주 신청 절차를 밟으러 가는 것으로 소설의 시간은 종결된다.

일개인의 감정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규정함으로써 인물의 갈등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이 전형적인 서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야기가 멈춘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산곡」의 시간은 일제시대의 고달픈 삶으로부터 시작되어 해방과 토지개혁을 거쳐 당의 이주 지시를 따를 것을 결심하는 순간 종결된다. 하몽이 어엿한 한 사람의 농민 주체로 발돋움하게 된 과정은 온전히 담겨 있는 반면, 이주 이후의 이야기는 서사화되지 않는 것이다. 황건은 이주 이후의 삶을 그리거나 후편을 기약하는 대신 「산곡」의 결미에 아래와 같은 ‘부기’를 쓴다.

부기(附記)—이야기는 여차피 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몽’의 운명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몽’이 이주지에 가는 것은 내년봄이고 가서의 ‘하몽’이 또다시 품을 휘황한 기쁨과 옳은 리치를 더욱 절실히 터득한 나머지 그 성격이 보여주는 바와같이 ‘이치’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서고자 할 것은 지금 북조선 각처에 이주된 수많은 농민들의 생활과 그 적극성에 비추어 혈이 추측할 수 있겠기에 붓은 또한 여차피 여기서 꺾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38)</sup> (밑줄은 인용자)

황건은 부기를 추가함으로써 「산곡」의 시간을 ‘이주 이후의 행복한 삶’의 전사로 의미화한다. 또한 이주 이후의 생활상을 그려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각처 이주농민들의 생활로 쉽게 추측할 수 있기에 여차피 재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덧붙인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라면 토지개혁으로

38) 위 인용은 황건이 1947년 4월 『문학예술』에 「산곡」을 발표할 당시 썼던 부기이다. 황건, 「산곡」, 『문학예술』 1, 1947.4.

행복을 찾은 하몽의 인생역정 또한 이미 실현된 삶으로서 굳이 담아낼 필요가 없고, ‘부기’를 통해 이주 이후의 삶을 스케치해놓을 이유도 없다. 또한 이 ‘부기’는 급작스럽게 봉합되어버린 하몽의 심적 갈등과 ‘옳은 이치’에 대해 서사 바깥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교롭다.

끝내 썩어지지 못한 미래가 마음에 걸렸던 까닭인지, 황건은 1949년 발간된 단편집(『탄맥—황건 단편집』, 문화전선사, 1949)에서 위의 부기를 지우고 아내 고분이와 함께 새로운 땅이자 원래 고향이었던 함주로 이주한 하몽의 이야기를 짧게 덧붙인다. 1946년 10월(1947년 4월)<sup>39)</sup> 시점에는 쓸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간 것이다.

복골을 떠나온 지 반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몽은 논밭이 내려다보이는 개간지에서 “풀내음새 익어가는 곡식 내음새 후끈한 땅 내음새”를 맡으며 “이름모를 새느낌 새희망”(142면)에 잠기고, 고분이는 그새 한글을 막힘없이 익혔다. 멀리 있는 가족들이 “겪지못한 또하나 새전변을 경험한 자기인 까닭에 자신은 그들과 너무나 달라진것같고 또 할말이 많은” 부부의 이야기는 다시 괄호 속에 남겨진다.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너무도 많은 사연”을 “편지에 담고 싶”다는 부부의 벽찬 감정이 반복하여 강조되지만, 정작 그 편지에 담을 이야기, 그들의 경험담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쓸 이야기가 많다는 서술만 맴돌 뿐, 부기를 지우고 써내려간 개작에서도 이주 이후의 미래(현재와 과거를 모두 담아 내야 할)를 담은 ‘편지’는 썩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주 이후의 삶은, 앞서 이주를 설득하기 위한 전언(傳言)이기도 했던 “평야옥토를 분여받고 짐을 가지고 소를 얻고 량식을 타고 그런 이야기”라고 짧게 요약된다. 그들 삶의 구체적 재현을 대신하고 비어버린 결말부를 채우는 것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중에도 목에 처받히게 주고 싶은 말은 ‘우리 이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것이 아니다.’”(146면, 밑줄은 인용자)라는 굳센 다짐

39) 『문학예술』에 작품을 게재한 것은 1947년 4월이지만, 작품 말미에 기록된 창작연월은 1946년 10월이다. 개작된 「산곡」이 수록된 『탄맥—황건 단편집』의 발행연월은 1949년 10월이다.

이다. 소설은 그렇게 다시 끝맺어진다.

「산곡」에서 “북조선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개공사”(122면)와 개간지 이주 이후의 희망찬 미래를 강조하는 서술의 배경에는, 척박한 산악지대가 많고 넓은 평야가 적은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분배 과정에서 충분하고 공평하게 땅이 나누어지기 어려웠던 북조선의 현실적 난맥상이 담겨 있다. 「산곡」을 비롯한 여러 토지개혁 소설에서 수리공사나 개간사업, 옥토 만들기라는 교훈적 과제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토지 개혁과 관개공사 등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황건이 이를 서사화하지 않은 것, 동시에 그려내지 않은 시간에 대한 추상적 서술과 그에 대한 이유를 부기로 덧붙인 배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구태여 덧붙여졌던 사족 같은 ‘부기’, 그리고 개작 이후에도 구체적 삶의 모습이 피상적으로 얼버무려진 서사에는 토지개혁 3년차를 맞은 1949년의 시점까지도 북한의 이주·개척 사업이 뚜렷한 결과를 산출하기 불가능했던 시간적 조건,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확립한 이주민들의 이상적 삶을 난망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곤경, 그 ‘미해결의 운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가 토지개혁 3년차를 맞아 출간한 『농민소설집』 시리즈(총3권·4책)의 기획 배경과 내용을 살펴 보았다. 『농민소설집』은 전형적인 농촌 선전소설로 읽히기 쉽지만, 그 서사의 배면에는 당대 북한사회의 핵심 과제와 욕망, 난제 등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949년 4·8·12월에 발간된 『농민소설집』은 단지 북한사회의 이상적 축도와 미래 지향을 그려내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1948년 5월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사회의 실정(失政)을 견제하고 비판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 위에서 편찬되었다. 해방기 ‘토지개혁’은 북한사회가 이룩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또한 일제시기뿐만 아니라, 8·15 이후 농민의 여전히 지난한 삶과 토지개혁 이후 농민의 희망찬 삶을 비교하는 방식처럼, 토지개혁은 진정한 ‘해방’의 의미와 본질을 설화할 수 있는 증좌이기도 했다. 남북은 ‘두 번의 해방’이라는 수사를 통해 ‘해방’의 의미를 각기 전유하고,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토지개혁을 통해 북한이 또 한 번의 해방으로 선언했던 것은 ‘농민의 해방’이었다. 남한과 대비되는 토지개혁을 통해 해방의 의미를 재규정함으로써 ‘농민해방’으로서 토지개혁의 역사적 당위를 설파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희구했던 해방과 실감으로서의 해방에 대한 현실적 간극을 봉합하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상적·문학적 실천이었다.

‘농민의 해방’은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 각성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토지를 분여 받은 농민이 경제적 주체로서 일정한 토대를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는 일련의 과정이 진정한 ‘농민해방’의 지향으로 설파되었다. 따라서 ‘무지렁이’ 농민들이 식민 착취의 피해자에서 해방의 주체로 전신하는 과정에는 토지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재편이 필수적이었다. 공산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국가산업구조와 노동인력을 파악·조정하기 위한 ‘토지개혁’과 ‘공장국유화’ 등의 실현은 국가 형성의 단초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 주된 구성원인 농민이 봉건-식민제국의 피지배계층이 아니라 토지개혁으로 실현된 경자유전의 원칙 위에서 경제적 주체로서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미래를 문학은 형상화했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민족국가 건립을 위한, 혁명으로서의 토지개혁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사유재산 몰수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되었던 계급·계층 질서가 해체되면서, ‘토지개혁’으로 표상되는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에 대한 의문

과 부정이 침예한 갈등으로 격화되어갔던 것이다. 경제 문제로 비로소 가시화되고 체감된 이념은 (토지개혁의) 소문과 (월남자의) 증언에 의해 이후 남·북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이자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농민소설집』은 북조선예술총련맹 창작방법론에 따라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교양’을 체현한 작품을 선별하여 편찬되었지만, 그 소설들에는 기획 의도를 배반하는, 소유·신분 질서의 해체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갈등과 미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선경제구조를 기형화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침투 이후에도 나름의 도덕경제 안에서 공동체를 꾸렸던 마을 사람들은 토지개혁을 기점으로 새 경제 체제와 변화된 도덕률의 세계에 인입하게 된다. 과거 소유권 제도 안에서 규정되던 한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격랑을 맞게 된 것이다. 지주와 빈농을 선악의 도덕적 구도로 재현하고 인식하는 정형성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예컨대 과거에 땅을 소유했던 자영농·자소작농이 토지개혁을 바라보는 미묘한 심리나 신분의 위계가 해체되며 머슴과 동등한 처지가 된 평민의 불만이 새로운 공동체에 수렴·충돌하는 양태를 소설은 ‘ 해소 가능한 갈등’으로 그려낸다. 이처럼 『농민소설집』의 소설들은 당대의 담론장에서 운위되지 않고 포착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담아내고, 현실세계의 난제들을 서사적 공간에서 재현하며 그 해결의 과정을 상상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도래해야 할 미래’를 전제한 뒤, 그 ‘오지 않은 미래’를 형상화하는 작업의 간극은 서사적 공백으로서 흔적을 남겼다. 혼란한 전환기로서의 현재를 대체하는 긍정적 미래의 서사를 구현해낼 수 있던 동력은 북한사회가 적극 선전하고 구체적 지향을 제시했던 핵심적 운동들을 통한 것이었다. 개간 및 관개공사, 증산, 농사법 개량, 현물세 납부 완수, 공공품 생산 경쟁, 미신타파, 김일성 우상화, 문맹퇴치 등의 현재적 운동은 미래의 희망적 삶의 형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레알리티’한 농촌 현실의 재현을 중시했던 북의 작가들이 오지 않은(을) 미래를 ‘부재(不在)’로 남겨두지 않기 위한 문학의 응전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농민성분분석 조사에 관한 건」(1947.7.9), 『잡철(비밀)』.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I,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증산을 위하여」, 『농민』, 1949.1.
- 강진건, 「해방 2년간에 있어서 북조선농민의 생활」 『보도』 4, 민주조선출판사, 1947.10.
-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 김성옥, 「그 농민은 행복함을 말하였다」, 『새조선』 2(3), 국립인민출판사, 1949.4.
- 김진태, 「현물세 납부를 위한 룡반리 농민들의 투쟁」, 『농민』, 1949.10.
- 김현순, 「친세봉과 농촌」, 『조선문학』, 1960.7.
- 남창희, 「새영농업실시와우리마을」, 『농민』, 1950.1.
- 동맹군중문화부, 「동기군중문화사업의 보다높은 향상을 위하여」, 『농민』, 1949.10.
- 리일찬, 「향상된 마을」, 『조선여성』, 1950.3.
- 리태준, 『첫 전투』, 문화전선사, 1949.11.
- 리태준 외, 『농민소설집 제1권』,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4.
- 박남수·우대식 編著, 『적치 6년의 북한문단』, 보고서, 1999.
- 박동철, 『농민독본』, 신흥출판사, 1948.
- 박성훈, 「배움의 노래」, 『농민』, 1950.1.
- 백근석, 「현물세의 노래」, 『농민』, 1950.1.
- 신형기·오성호·이선미 편, 『북한문학(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문학과지성사, 2007.
-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북한법령연혁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 여민, 「농민소설 제1집을 읽고」, 『농민』,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농민신문사), 1949.11.
- 여민, 「농민소설 자라는 마을을 읽고」, 『농민』,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농민신문사), 1950.1.
- 윤세중, 「안골동네」, 『문화전선』 5, 1947.8.
- 조선문학가동맹농민문학위원회 편, 『토지』, 아문각, 1947.7.
- 조희순, 「모범농민 리보부 동무」, 『조선여성』, 1949.3.



- 천세봉 외, 『농민소설집 제3권—땅의 주인들(하)』,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12.
- 최영근, 「고공품생산을 제때에 완수하자」, 『농민』, 1949.11.
- 최운란, 「모범농민 전덕남 동무」, 『조선녀성』, 1949.3.
- 한설야 외, 『농민소설—자라는 마을』,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8.
- 한설야 외, 『소설집—8·15해방 4주년 기념 출판』, 문화전선사, 1949.8
- 황건, 「산곡」, 『문학예술』, 1948.1.
- 황건, 「십릿벌」, 『농민』, 1949.7~8.
- 황건, 『탄맥—황건 단편집』, 문화전선사, 1949.
- 황건 외, 『농민소설집 제3권—땅의 주인들(상)』, 북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군중문화부, 1949.12.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인물정보관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Detail.aspx?mc=EJ0702&hid=EH010400012240&rightType=3&direct=1>

## 2. 단행본

- 김병민 외, 『조선-한국 당대 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2000.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호웅, 『재중조선인 디아스포라문학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10.
- 신형기, 『이야기된 역사』, 삼인, 2005.
- 조규익, 『해방 전 만주지역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국학자료원, 1996.

## 3. 논문

- 공임순, 「민주주의의 (先)정치적 담론 자원과 인민대중의 진정한 지도자상」, 『서강인문논총』 29, 인문과학연구소, 2010, 134-135면.
- 김성수, 「북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비평사(1945~67) 연구 서설」, 『반교어문연구』 59, 반교어문학회, 2021, 207-210면.
- 김재용 외, 「북한의 문학잡지」, KBS 남북교류협력단 편, 『KBS 통일방송연구 제18권—북한의 문화·예술』, KBS, 2008, 13면.
- 김진영, 「언어의 기념비—해방기 ‘조소(朝蘇)친선’의 서사와 수사」, 『러시아연구』 31(1),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1, 102면.
- 박필현,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 연구—좌우의 갈등기, 문학적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05-224면.

- 박필현, 「카프의 『농민소설집』과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 비교 연구—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153-181면.
- 신형기, 「식별의 인상학—북한소설의 출발과 행로」, 『사이』 2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181면.
- 안문석·최재덕, 「1946년 북한 토지개혁의 부정 사례와 그 원인」, 『한국동북아논총』 24(2), 한국동북아학회, 2019.
- 오테호, 「『응향』 결정서를 둘러싼 해방기 문단의 인식론적 차이 연구」, 『어문논집』 48, 중앙어문학회, 2011, 37-41면.
- 오테호, 「해방기(1945~1950) 북한 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문화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 우리어문학회, 2013, 328-329면.
- 유임하, 「해방기 남북한소설의 토지개혁 형상화 문제」, 『동악어문학』 35, 동악어문학회, 1999, 507-532면.
- 정덕준 외,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이주문학 연구—민족사적 의의를 중심으로」(2004년 협동연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12-17면.
- 조경덕,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 연구」,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320-336면.

<Abstract>

To write a future that will not come  
– Focusing on land reform in North Korea  
and the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1949)  
serie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Yim, Se-hwa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Peasant Novel Collection’ series published by the people Culture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North Korea Farmers League to mark the third year of land reform. Although the ‘Peasant Novel Collection’ is easy to read as a typical rural propaganda novel, it deserves attention because it reflects the core tasks, desires, and difficulties of the contemporary North Korean society behind the narrative. The ‘Land Reform’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as a visible indicator of the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ism accomplished in North Korea, and the achievement of ‘democracy.’ Also, it was corroborative evidence that could preach the true meaning and essence of ‘liberation’. Through the rhetoric of ‘two liberations,’ the two Koreas interpreted the meaning of ‘liberation’ differently and tried to prove their ideological legitimacy and superiority.

The ‘Peasant Novel Collection’ depicted the future of true ‘peasant liberation’, in which the peasants build a certain foundation as an economic ag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farmland ownership realized by the land reform, and based on this, become a political agent. The ‘Peasant Novel Collection’ was compiled according to the official creation methodology by selecting works that embody the ideal and positive

‘building’. However, the novels contained the conflict and confusion of the rural community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the ownership and social status order, which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ovel collection. The novels in the ‘Peasant Novel Collection’ showed problems that were not discussed and captured in the discourse of the time, depicted the challenges in the real world in a narrative space, and presented the problem-solving process as an imaginary alternative. It was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 writers, who emphasized the reproduction of the ‘real’ rural reality, to shape the ‘future that has not come’. The traces left in the narrative blank were a response from literature in order not to declare the future that has not come (will not come) as ‘absence’.

Key words: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Land reform, Moral economy, Liberation of Farmers, Positive Characters, Creation Methodology, Yoon Si-chul, “Yiang[移秧, rice transplanting]”, Yoo Hang-rim, “Boodeukyi”, Han Seol-ya, “Maeul Saramdeul(the villagers)”, Yoon Se-joong, “Oumeoni(mother)”, Lee Choon-jin, “Jarang(proudness)”, Hwang Geon, “Sipritbeol”, “Sangok(山谷)”

투 고 일: 2022년 5월 18일

심 사 일: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6월 20일